

# 1719年 申維翰이 본 日本

鄭章植\*

---

## 目次

---

- 一. 序論
  - 二. 使行
    - 1. 使行 과정
    - 2. 靑泉이 본 日本
  - 三. 結論
- 

## 一. 序論

國體의 상징인 王(仁祖)이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은 丙子胡亂은 倭亂보다 더 깊은 정신적인 상처를 조선에 남겼다. 이후, 조선은 臥薪嘗膽하며 淸에 復讐雪恥하겠다고 北伐의 뜻을 품었으나, 孝宗(在位 1649-59)이 승하하자 北伐論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外治 이데올로기였던 北伐論과, 內治의 기본 방향이었던 禮治에서 北伐論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肅宗代(在位 1674-1720)는 禮治로 정치 중심이 옮겨졌다. 淸과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어 內治에 역점을 두게 되자, 이에 따른 論爭인 ‘禮訟’이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의 정치상황에서 중요한 爭點이었다.<sup>1)</sup>

1704년(肅宗 30), 조선은 昌德宮 後苑에 淸의 神宗과 毅宗을 제사 지내는 大報壇을 세

---

\* 淸州대학교 부교수 日本學

- 1) “禮訟”(「己亥(1659)禮訟」, 「甲寅(1674)禮訟」)은 服喪 期間을 둘러싸고 일어난 黨爭으로, 겉으로는 王室의 典禮 문제이었지만, 실체는 禮를 최고의 德으로 여기던 性理學의 핵심 문제이었다. 이렇게 服喪 期間의 異見이 黨爭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1711년에 일본이提起한 ‘通信使 聘禮改變’은 侮辱이었다. 黨派가 學派였다는 사실을 看過하면, 黨爭을 泥田鬪狗와 같은 政爭으로 볼 수 있으나, 黨爭은 정치 이념과 時務를 다루는 의견 충돌이었지 정권 쟁취를 위한 政爭은 아니었다.

우고 祭儀를 행하며, 스스로 明의 후계자로 유일한 ‘中華 임을 内外에 천명하였다 以前の ‘小中華’는 明을 의식한 자세였지만, 明이 멸망하였으니 조선이 이제는 중국의 邊境이 아니라 중국 문화의 嫡統이 되어 명실 공히 유교 문화의 중심인 ‘中華’가 되었다고 자부한 것이다. 肅宗代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書院 건립도, 이러한 ‘中華’ 사상을 확대 보급하는 현상이었다.<sup>2)</sup>

1711년(肅宗 37. 正德 元) 家宣 將軍의 襲職 축하를 使命으로 파견된 사행에 대한 막부의 聘禮改變은 조선에게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幕府의 실력자 新井白石은 나름대로의 名分을 내세워 聘禮를 改變하였으나, 1607년부터 계속 되어온 使臣 聘禮를 막부가 일방적으로 개변하자, 사신도 당황하여 반발하였지만 결국 막부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 나중에는 兩國 國書에서 부적절한 字句를 수정하여 대마도에서 교환하는 異例의인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朝廷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책임을 사신에게 몰어, 사신을 처벌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인 것도, 禮에 역점을 둔 中華사상의 한 표현이었다.

1716년(숙종 42. 享保 元) 家宣 將軍의 뒤를 이어 吉宗 將軍이 襲職하자, 조선은 前例에 따라 襲職 祝賀를 使命으로 通信使를 파견하게 되었다. 1719년 사행에서는 막부가 聘禮를 舊例대로 회복하여 조선의 자존심은 회복되었으나, 肅宗의 老患에 凶作과 疫病이 겹쳐서 국내 상황이 좋지 않았다. 1719년(숙종 45. 享保 4)사행을 수행한 製述官 申維翰(호는 靑泉, 이하 ‘靑泉’이라 함)의 『海游錄』은 사행록의 白眉로 일컬어진다. 本稿에서는, 1719년 사행을 두고 벌어진 양국의 외교적인 갈등과, 朱子學과 詩文으로 文明을 가름하던 靑泉의 視覺을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 二. 使 行

### 1. 使行 파견

#### 1-1. 外交의 줄다리기

1716년(숙종 42) 6월 9일 대마도는 “일본의 關白이 죽고 새 關白 紀伊太守 源吉宗이 섰다”고 조정에 알려왔다 이것은 조선이 恒例로 將軍襲職 축하사절을 파견해야 한다는 예고이었다. 그러다가 12월 27일 差倭가 東萊府에 이르기를, 새 關白이 매(鷹) 사냥을 즐긴다며 매 6連을 요구하여, 예조는 매를 사가도록 허가하였고, 12월 22일에는 問慰역관을 대마도에 파견하여 弔問을 겸하여 島主(宗義方)가 江戶에서 돌아온 것을 慰問하였다.<sup>3)</sup>

2) 鄭玉子, 『朝鮮後期 朝鮮中華思想研究』 一志社, 2001. p.9-25

3) 『國譯 增正交隣志』제6권

將軍襲職을 축하하는 通信使 파견이 이미 恒例가 되었으므로, 1717년 4월 島主가 幕府에 通信使 초빙 시기를 물으니, 막부는 1719년 7·8월에 江戸로 통신사를 초빙하며, 병례는 “天和 2년”(숙종 8. 1682)의 예에 준하여 추진할 것을 명하였다. 1717년 6월에 막부는 通信使 초빙 책임자를 老中 土屋政直에서 老中 中井上正岑으로 바꾸고, 7월에는 林信篤에게 通信使 초빙에 대한 업무를 의뢰하였다.<sup>4)</sup> 林信篤도 1711년 사행 때 新井白石에 밀리어 通信使 병례에 主役을 담당하지 못하였으나, 吉宗 장군 취임과 함께 新井白石이 정치에서 물러나자, 通信使 병례를 주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막부의 “朝鮮人來聘御用” 任命은, 1711년 聘禮(「正徳の例」)를 1682년 聘禮(「天和の旧例」)로 改變하는 준비였다. 新井白石의 병례 개편이 林家를 비롯하여 老中 사이에서도 비판을 받았고, 吉宗 將軍이 享保改革의 기본이념을 幕府 초기의 家康 정권에 두었으므로, 通信使 병례도 新井白石 以前으로 되돌리는 것은 당연하였을 것이다.

通信使 초빙에 대한 江戸의 命을 받고 島主가 1717년 10월 대마도로 돌아오니, 1718년 2월 말 東萊府使가 조정에 通信使 차출을 건의하였다. 島主는 通信使 초빙에 대한 節目講定을 위한 堂上譯官의 대마도 파견을 口頭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정은 節目講定을 위하여 역관을 파견한 前例가 없었음을 타이르고, 만약 역관을 파견하면 대마도가 점점 교만하여 무례한 짓을 할 것이며, 이는 名分에 관한 문제라 폐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口傳 요청은 받아주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다.<sup>5)</sup> 조정은 名分을 내세웠으나, 節目講定을 대마도에서 하게 되면 ‘地理의 利가 對馬島에 있으므로, 결국 대마도에 有利하게 講定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655년과 1682년 사행 때도 問慰譯官이 대마도에 가서 節目을 講定한 예가 있었으나, 1711년 사행 때 대마도가 병례 개편으로 조선의 체면을 깎아 내린 일이 있었기에, 조선은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島主가 江戸에서 歸島하였으므로, 이를 問慰한다는 名目으로 問慰譯官이 渡海하여, 8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대마도에 머물며 問慰를 겸하여 通信使 節目을 講定하였다. 이 때 問慰譯官이 東萊府 서계를 가지고 가니 대마도는 東萊府 書契는 江戸에 전할 수 없다며 예조 서계를 요구하였다. 朝廷의 官位는 東萊府使가 島主보다 높았으나, 通常 東萊府使가 島主나 倭館 館守와 書契를 주고받았으므로, 대마도는 막부와 抗禮가 되는 것은 예조 서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대마도는 당초 問慰譯官이 들어갈 때 예조 서계를 꼭 받아가려고 하였으나, 조정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으로 거절하였다. 그런데 問慰譯官이 두 달여 간이나 대마도에 머물러야 할 만큼 節目講定에 異見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9월 5일 島主(宗義方)가 府中에서 죽었기 때문에 葬禮를 치르느라 귀국이

4) 老中 土屋政直은 1711년 使行 때 新井白石에게 밀리어 通信使 병례를 新井白石의 의도대로 할 수 밖에 없었으나, 다음 기회를 염두에 두고 많은 私財를 들여가며, 사행 行程을 그려오도록 대마도에 부탁하였으나, 결국 老齡으로 使行을 맞을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 田代和生 『朝鮮通信使の行列繪卷』(上田正昭<1995>. 『朝鮮通信使』. 明石書店 >

5) 비변사등록. 숙종 44년 4월 16 일

늦어졌던 것이다.

조정에서는 대마도의 요구대로 예조 서계를 다시 보내면 “이는 講定이 아니라 여쭙고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품정(稟定)’”이라는 名分論을 내세워, 대마도가 “교활하게 위협”한다고 불쾌한 감정을 보였다.<sup>6)</sup>

問慰譯官이 대마도에 있는 동안에도 差倭가 예조 서계를 간청하였으나, “대체로 왜인들은 교활하여 한 치(寸)쯤 빌리다가 한 자(尺)를 빌려서 기필코 청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야만다” 며 대마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조정의 생각은 대마도가 예조 서계를 요청하는 것은, 조선이 마치 節目을 ‘품지(稟旨)’하여 받은 것처럼 꾸며 國中에 과시하려는 계책이고, 일찍이 예조에서 서계를 보낸 전례가 없었다고 거절하였다. 朝廷은, 東萊府 서계를 전한 뒤에 그들이 요구한다고 예조 서계를 다시 보내는 것은 事理에 맞지 않고, “邊臣(대마도)”이 감히 格例 밖의 일을 진정할 수 없다고 답하며, 이러한 事理를 잘 開諭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역관을 문책하도록 하였다.<sup>7)</sup>

그러데 禮曹判書 閔鎭厚가 청하기를, 대마도에 갔던 역관이 이 일로 되돌아왔고, 작은 일로 다툴 필요가 없으니 허락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여, 國王도 계속 거절할 필요 없이 예조 서계를 만들어 보내라고 裁可하여, 처음부터 빼격거리던 通信使 節目에 대한 예조 서계도 대마도로 보내졌다.<sup>8)</sup>

결국 조정은 대마도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지만, 대마도가 조정에 禮를 다하지 않고 名分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꽤 씩하게 생각하였고, 막부의 힘을 ‘狐假虎威’하며 조선을 위협하려는 교활한 태도라며,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조선이 오랫동안 대마도와 교섭하면서 학습한 條件反射와 같은 것이었다. 이제 비록 北伐論은 뒷전으로 밀렸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은 ‘北虜’가 北方에 버티고 있었고, 대마도 背後에는 幕府가 있었으니, 조선은 대마도에 懷柔策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 1-2. 聘禮 復元

조선이 1711년의 통신사 빙례를 생각하면, 대마도의 처사가 참으로 꽤 씩하였다. 대마도는 1711년 빙례 改變을 막부로부터 지시받고, 조선의 반발을 의식하여 고민하다가, 출발을 앞두고 差倭가 東萊府 首譯에게 口頭로 전하기도 하였고, 사행 도중에 사신에게 빙례 改變을 通告하기도 하였다. 또 조선 國書에서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써 왔던 글자를 트집 잡아 改書를 요구하여, 결국 兩國 國書를 대마도에서 교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으니, 조선은 국가 체면이 손상한 것에 대하여 대마도에 분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대마도를 不信의 눈으로만 보고 멀리 할 수도 없었다. 北方에는 復讐雪恥를 버르던

6) 비변사등록. 숙종 44년 7월 2일

7) 숙종실록. 44년 9월 3일

8) 숙종실록. 45년 1월 23일

淸이 있었고, 대마도 背後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시하는 막부가 버티고 있었으니, 가 능하면 대마도를 회유하는 것이 조선의 전통적인 交隣정책이었다.

사행을 앞두고 조정은, 譯官을 대마도에 보내어 節目을 講定하는 것은 “稟定”이냐고 비난하였으나, 사실은 節目을 講定하였다기보다 대마도가 전하는 節目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前行(1711년)의 兵禮 改變 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兵禮 改變을 항의하지 못하고 국가 체면을 손상시킨 책임을 사신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까지 하였는데, 이번에는 前行(1682년)의 兵禮대로 복원한다는데 異議가 있을 수 없었다.

우선 이번의 兵禮 복원을 보면, 前行 때 “日本國王”이라 불렀던 것을 “大君殿下”로 불러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前例가 있었으므로 조선이 굳이 異議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前行 때는 “若君”과 老中에 대한 兵禮를 없앴는데, 이번에도 “若君”(長福丸)이 어리고(5세) 말도 못하므로 사신의 拜禮를 받을 수 없다 하여 前行처럼 없앴으나, 禮曹에서 막부 老中에게 보내는 書契와 禮單은 1682년 例로 복원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요구하는 鷹子[매]와 執政[老中]의 인원수가 1682년 前例와 틀리나, 1655년 前例가 있으므로 숫자에 집착하여 한결같이 다를 수는 없겠다고 비변사가 건의하여, 世子의 허락을 받았다.<sup>9)</sup>

1711년 사행 때 통신사가 意外로 당황하였던 것은 막부가 제기한 諱字 문제였다. 조선이 먼저 諱字 문제를 제기하니, 막부도 ‘명군 장군’으로 家光 將軍의 諱(光字)를 조선이 범하였다고 주장하여, 결국 조선도 國書를 改書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東萊府使가 아뢰기를, 일본에 보내는 서계에 “重”字를 쓰지 않도록 하였다.<sup>10)</sup> 지난번 국서 개서 문제를 중간에서 仲裁하느라 애를 먹은 島主가 막부에 문의하니, 막부는 예조가 老中에게 보내는 서계에 “光”字를 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前行 때는 沿路 饗宴이 다섯 곳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1682년 例로 복원되었다 비변사는 前行의 사행록을 相考하여, 1655년과 1682년에는 沿路 饗宴이 없었는데, 1711년 때는 일시적으로 있었던 饗宴이니, 옛 규례가 아닌데 굳이 異議를 제기할 필요가 없으니 덮어두자고 하였다.<sup>11)</sup> 新井白石은 前行 때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饗宴 回數를 줄였는데, 이번에도 各藩의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은 없었으나, 막부는 饗宴을 旧例대로 늘였다

前行 때는 江戸 客館에 將軍이 보낸 問慰使가 찾아오면 사신은 계단 아래로 내려가

9) 비변사 등록. 숙종 45년 3월 27일

10) 숙종실록. 43년 7월 12일 - 동래부사의 장계는 問慰譯官이 대마도에 가져간 서계에 重演이라고 한 ‘重’자는 前 關白 이름자에 觸犯된 것으로, 대마도가 ‘감히 이것을 江戸로 傳送할 수가 없다’고 하며, 문자를 쓰는데 ‘重’자는 쓰지 않기로 辛卯年(1711) 사행 때 이미 약속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重’자는 前 關白 이름자가 아니라, 1711년 사행 때의 關白 家宣의 아버지 ‘綱重(甲府藩主)’의 이름자를 말한 것이다. 막부는 辛卯年(1711) 사행 때 ‘光’字를 犯諱로 주장하였으니, 關白(家宣)의 아버지 ‘綱重’의 ‘重’字도 쓰지 말도록 주장하였을 것은 당연하다.

11) 비변사등록. 숙종 45년 4월 20일

맞아들였으나, 이번에는 현관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將軍의 問慰使도 前行 때는 朝廷 關係의 儀禮를 관장하는 ‘高家’로 格下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복원되었다.

장군에게 國書를 傳命할 때도, 前行 때는 正使가 奉持하였으나, 이번에는 上上 역관이 奉持하게 되었다. 前行 때는 國書 傳命 빙례에 ‘御三家’는 사신과 同席하지 않았고 饗宴에도 同參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饗宴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번 빙례는 대체로 1682년과 같이 복원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므로, 빙례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빙례 복원에 대한 節目講定이 대마도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을 결정하는 主導權이 대마도에 있었으니, “邊臣(대마도)”이 결정한 節目講定을 朝廷이 추후에 “稟定”하는 형세가 되어버린 모양새가 불만스러웠을 뿐이다.

### 1-3. 使行 준비

1718년 2월 말에 東萊府使가 사신 임명을 건의하였고, 4월에는 영의정이 사신 임명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8월 하순부터 두 달여 동안 問慰譯官이 대마도에 파견되어 通信使 節目을 講定하니, 통신사 파견 준비가 되었다. 드디어 1719년 1월 29일, 世子는 三使(正使 洪致中, 副使 黃璫, 從事官 李明彦)를 불러, 使行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sup>12)</sup> 이 때 正使 洪致中은, 근래에 계속된 흉년과 전염병으로 民生이 어려우니, 사행 沿路의 잔치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하니, 世子가 허락하였다. 副使 黃璫은, 訓練大將이 활 만드는데 쓰이는 黑角[물소 뿔]을 사오라고 부탁하였는데, 黑角은 대마도의 主要 輸出品으로 대마도는 黑角을 조선에 수출하여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는데, 사신이 직접 密輸入하다가 들키면 입장이 難處하고, 국가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건의하니, 그렇다면 사오지 말라고 하였다.<sup>13)</sup> 또 副使는 使行錄을 詳考하여, 일본에서 받는 糧米나 饋物이 남으면 下인들이 되팔아서 銀을 취하여, 국가 체면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건의하였다. 아울러 副使는, 交隣에는 誠信이 중요하므로, 각종 禮單도 각별히 정밀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며, 특히 人蔘은 일본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니 雜物을 채워서 무게를 늘려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하자, 그런 속임수는 死刑 다음의 죄로 엄벌에 처하도록 하였다. 從事官 李明彦은, 潛商의 重罪人은 곧바로 梟示(梟示)하고 추후에 보고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하니, 이것도 역시 허락하였다. 더욱 수법이 교묘해진 潛商으로 골머리를 앓던 조정은, 潛商의 重罪人을 바로 梟示하도록 1711년 사행 때 결정하였으나, 이러한 법규를 상기시켜야 할 만큼 험잡이 많았다.

正使가 건의한 沿路의 잔치를 줄이는 문제 외에, 副使가 건의한 密輸入 금지와 禮單을 정밀하게 갖추는 것이나, 從事官이 건의한 潛商에 대한 엄벌 등은 모두 국가 체면에 관

12) 肅宗은 身病이 重하여 世子(뒤의 景宗)가 3년 전부터 政務를 管掌하고 있었다.

13) 1655년 사행 때, 비변사에서 역관에게 엄초와 유향을 사오도록 부탁하였는데, 대마도가 역시 密貿易을 트집 잡아 難處하였던 일이 있었다. <비변사 등록. 숙종 43년 2월 2일>

한 것이었다. 조정이 이렇게 국가 체면을 생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나, 왜인(대마도인)과 거래가 늘어날수록 下屬들의 비리도 늘어나고 있었다. 下屬들은 국가 체면보다는 자신들의 小利에 집착하였으므로, 倭館과 使行에서 발생하는 非理 대책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었다.

前的 差倭는 草梁에 오는 즉시 殿牌에 肅拜하고 方物을 封進하였는데, 근래에 들어 대마도가 조정을 업신여기듯이, 差倭가 장사하는데 바빠서 조정에 進上하고 肅拜하는 예절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었다.<sup>14)</sup> 交隣外交에서도 朝政의 관심은 禮에 있었으므로, 대마도가 행하는 禮인 進上和 肅拜에 대한 답례로 장사를 허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에서 오랑캐가 開市를 위해 멀리서 오면 慰撫하는 뜻으로 접대하는 예를 따른 것이었으나, 差倭는 접대를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거나, 규정에 없는 日數의 접대까지 받으려고 하여, 대마도 사람에 대한 인상이 나빴다.

그런데 誠信外交를 위해서는 우선 조선이 上國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나, 東萊府의 下屬과 역관들이 일을 꾸며 대마도에 支供하는 公作米 지급을 늦추거나, 쌀에 모래나 뉘 따위를 섞거나 물을 적셔서 부피를 늘이는 속임수를 쓰기도 하여, 불만을 사는 일이 많았다.<sup>15)</sup> 그래서 正使 洪致中은 世子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먼저 조선이 대마도의 불만을 사고 있는 公作米에 대한 폐단을 고쳐 본을 보이면, 저들도 반드시 감동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건의하니, 世子도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사신들에게 무사히 갔다 오라고 하였다.<sup>16)</sup> 이제 일본 사행이 이홉 번째가 되니, 朝廷에서도 사신에게 일본의 實狀이나 軍事의인 動向을 잘 살피고 오라는 諭示는 없어지고, “水路가 험하고 먼데, 무사히 갔다 오도록 하라”는 간단한 諭示만 하게 되었다. 사행 파견을 앞두고 거론된 조정의 의견을 보면, 일본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를 벌릴 필요나 여유가 없었고, 단지 使行이 일본에 가서 국가 체면을 상하지 않게 하며, 사행 준비도 이에 따른 대책뿐이었다.

## 2. 靑泉이 본 日本

### 2-1. 使行을 떠나며

靑泉은 前에 秘書著作郎과 국가의 祭禮를 관장하는 태상시(太常寺)에 봉직하였다가, 39세에 通信使 製述官으로 任命되었다. 戶曹 參議 局長級에서 正使로 임명된 洪致中이 53세이었고, 世子의 교육 담당인 侍講院 輔德에서 副使로 임명된 黃璫이 38세이었고, 兵

14) 속중실록. 44년 1월 19일 - “왜인 접대에 먼저 진상 숙배하는 등의 禮를 행하게 하라는 동래부사의 장계”

15) 譯註『交隣提醒』(4)(5)

16) 속중실록. 45년 4월 11일 - 通信 正使 洪致中이 하직하니 世子가 불러서 유시하다.

曹 正郎(部長級)에서 從事官으로 임명된 李明彦이 46세이었다. 나이나 官職으로 보면 靑泉은 三使보다 높지 않았으나, 使行에서 차지하는 업무가 막중하여, 詩文에 뛰어난 사람을 고르다가 正使의 추천으로 임명되었다. 靑泉은 31세에 늦게 과거에 及第하여 관직에 나왔으나, 庶子 출신이라 세상에서 명예롭게 치는 靑顯職에는 오를 수 없었으니 “답답하여 벼슬하여 이름을 낼 뜻이 없어” 下職하고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이렇게 선비는 벼슬길에 나갔다가도 뜻에 맞지 않으면 미련 없이 하직하고 落鄉하여 학문 연마와 후진 양성에 몰두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靑泉도 홀로 上京하여 벼슬길에 나가보니, 薄俸으로 客地 생활을 꾸려가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中央의 정치는 黨爭으로 어지러웠으므로, 落鄉하여 老母를 모시며, 詩書畫를 벗 삼아 處土로 조용히 사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벼슬 사는 동안에 그의 文才가 소문이 났던 탓에 뜻하지 않게 제술관으로 추천을 받았다. 靑泉은 “老母를 부양해야 하며, 재주가 둔하여 중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고, 몸이 약하여 막중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글을 조금 한다는 헛소문 때문에 위험한 使行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한탄하였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謙辭라기보다, 가기 싫은 使行에 억지로 차출되어 끌려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修辭로 보인다.<sup>17)</sup>

靑泉은 老母의 병환으로 고향인 高靈에 돌아와 있었으므로, 사행에서 빠지려고 하였으나, 발령이 난 후에 번복하는 것이 어려워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 官職을 사양하고 落鄉할 때, 老父母를 모시기 위하여 관직을 사양한다면 孝道를 주요 德目으로 삼았던 조선인 지라, 임금도 무리하게 강요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 靑泉 老母의 병환이 好轉되어 이것마저 핑계 삼을 수 없는 처지였던 모양이다. 몸이 약하여 사행을 사양한다는 변명은 사실로서, 靑泉은 사행 중 過勞로 持病人 痔疾이 도져서 고생한 적이 많았다.

당시 黨爭이 심하던 때라, 使行 중의 言行에 꼬투리를 잡히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었으니,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임무를 떠맡지 않는 것이 保身을 위해서도 좋았을 것이다. 1711년 사신이 일본에서 國書 改書와 聘禮 改變을 죽음으로 막지 못하였다고, 귀국 후에 탄핵을 받아 관직 박탈과 門外 추방이라는 처벌을 받은 예도 있었다. 만약 北京에 가는 燕行使를 수행하면 見聞을 넓힐 수 있어서 榮譽라 할 수 있겠으나, 배울 것도 없는데 말썽만 많은 일본 사행은 得보다는 위험 부담이 많은 사행이었으므로, 靑泉이 일본 사행을 기피하였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昆侖學士 崔昌大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文章力을 과시하는 듯, 1711년 사행 때 가져온 「白石詩草」를 보고, “日東에서 글재주를 자랑한다는 사람도 한쪽 팔로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 千篇萬首를 빨리 風雨처럼 휘둘러 거북(鉅鹿)의 諸侯들을 벌벌

17) 1748년(英祖 24) 사행의 正使 洪啓禧도 “신유한의 문장은 옛날에도 또한 견줄 만한 이가 드물다” 며, 신유한의 벼슬을 올려줄 것을 건의하였다.<영조실록 27년 2월 3일> 이것을 보면 신유한의 名聲을 다음 사행(1748년)의 正使 洪啓禧가 일본에서 들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떨게 할 수 있음”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日東이 땅이 넓고 山水가 맑은 곳이라, 재주가 높고 눈이 넓은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글재주를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4월 11일 서울을 떠난 靑泉은 18일 三使와 잠시 헤어져 먼저 고향에 들러 老母를 뵙고, 旅裝을 갖추느라 10여 일 머물다가, 5월 7일 부산으로 내려갔다. 가는 길에 密陽에 들러 先山에 성묘하고, 舊友들과 헤어졌다. 舊友들은 모두 燕나라의 노래로 이별을 서러워하였으니, 舊友들은 靑泉을 마치 위험한 敵國으로 보내는 사신처럼 생각하였던 모양이다.<sup>18)</sup>

5백여 인원이 6척의 배로 “물결은 산과 같고 오랑캐 땅 연기가 눈을 가리른 바닷길을 떠나려니, 걱정이 앞서 海神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癸未年(1703. 숙종29) 2월에 대마도로 가던 問慰譯官 韓天錫 일행이 鱒浦 앞바다에서 바람을 만나 침몰하여 113명이 모두 익사한 일이 있었다. 1607년 日本使行을 시작한 이래 通信使가 海難을 당한 적은 없었으나, 16년 전에 問慰譯官 일행이 큰 海難을 당하였기에 海神祭를 지내는 분위기가 자못 엄숙하였다.<sup>19)</sup>

使行의 모든 사람이 이틀 동안 警戒하며, 하루 목욕재계하느라 술, 담배, 고기, 마늘과 등을 먹지 않았고, 風流, 問喪, 問病 등을 금하며 무사한 뱃길을 빌었다. 海神祭의 祝文도, 바다 밖의 오랑캐 땅을 가는데, 저들이 날뛰고 교활하여 회유시켜 화평케 하려고 자주 왕래하는데, 아무쪼록 海神의 도움으로 사행의 平安을 비니, 祭物을 드시고 感應하기를 빌었다. 6월 20일 새벽에 하늘이 맑고 구름이 없어 海神이 강림하는 것 같아 使行의 祥瑞를 믿으며, 사행의 첫발을 무사히 대마도 北岸의 佐須浦(佐須奈)에 들여놓았다.

## 2-2. 對馬島의 印象

대마도의 첫 인상은 貧寒한 섬이었다. 왜인들의 말씨도 “마치 물이나 불속에 빠진 것 같이” 輕薄스럽고 시끄러운데다, 접대하는 음식도 “조그마한 붉은 소반에다 검은 木器 두어 개를 놓아, 밥, 나물, 술, 과실을 가져왔는데, 맛이 없고 물건도 또한 초조하였다.” 다음 날 島主가 사신을 문안한다고 특별히 가져온 것도, “몇 가지 과실을 담은 것뿐이어서 웃음이 나왔다.”

백성들은 가난하였고, 寺刹도 民家와 같이 화려하지 않았으며, 중들도 글을 몰랐다. 거기다 “관리나 백성이나 모두 다 글 한 자도 모르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서로 이익

18) 燕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秦王을 죽이려 갈 때, 송별하는데 슬픈 노래를 불렀다.

19) 『國譯 增正文隣志』제6권 p.274-5. 숙종실록 29년 2월 19일

1748년의 『奉使日本時見聞錄』, 1764년의 『海槎日記』, 1811년의 『東槎錄』에서도, 鱒浦를 지날 때 마다 “癸未年 海難事故”를 기억하며 조심하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 『國譯 海行摠載』에서 “癸未年”을 “仁祖 21년(1643)”으로 譯者註를 잘못 달았다

만 추구하니 참으로 葛伯의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오랑캐들이었다.

그런데 靑泉의 쓸쓸한 기분을 위로해 주는 것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대마도의 아름다운 경치였다. 당시 선비에게 詩書畵는 필수적인 교양이었으니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詩興에 겨워 한 수 읊으며, 文人畵를 남기는 것은 선비가 누리는 최고의 취미였다. 그러므로 선비가 좋은 경치를 보는 눈은 남달랐고, 좋은 경치를 찾는 것은 선비 최고의 風流였다.

靑泉이 대마도에서 놀란 것은 佐須浦의 경치였다. 佐須浦는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처럼 아담한 浦口였으나, 靑泉은 이렇게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경치가 처음인지 “바다 동쪽 神仙의 땅이 前生부터 因緣이 있는 듯하였고, 이곳에 머무니 마치 “武陵桃源 꽃 속에 노 젓는 것 같다”고 읊었다. 오랫동안 걱정하였던 바다를 무사히 건너 대마도에 오니, “오랑캐 나라 누추한 것 잊어버리고, 사슴 타고 神仙의 집에 온 양 스스로 자랑” 하고픈 심정이었다. 鰐浦는 癸未年(1703)에 問慰譯官이 遭難 당한 곳이라 기분이 오싹하였지만, 한 잔 술을 마시니 또한 詩興을 돋을 만한 경치였다. 西泊浦에서도 琪花瑤草와 경치가 좋아서 반나절 동안 배회하며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다가, ‘西福寺에서 秦始皇이 보냈다는 ‘徐福’을 연상하여 “西浦懷仙歌”를 지으며, 秦始皇이 보낸 童男童女가 “천년 동안 가지 않고 바다 하늘 이득하다”며, 이곳이 바로 “神仙窟”이라고 읊었다. 府中으로 가는 도중에도 그림 같은 경치가 많았으나, 船頭港의 仙境에 반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더위를 잊으며 경치를 감상하니, 사행에 수행한 보람을 처음 느꼈다. 그곳이 仙境이라 “만약 천하에 알려진다면 날마다 천만 명이 몰려올 터인데, 불행히도 먼 바다밖에 버려져 있어 이무기와 고래의 소굴이 되어” 안타깝다고 하였으니, 靑泉이 얼마나 대마도 경치에 혹하였는지를 알 수 있겠다. 조선의 關東八景도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詩人墨客의 사랑을 받았으나, 內陸에서 생활하였던 靑泉에게는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대마도의 경치가 仙境처럼 보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대마도의 경치를 읊은 詩는 誇張이 많았다. 漢詩 作法에 있어서, 사실을 中國故事에 비유하거나, ‘白髮三千尺’이나 ‘飛流直下三千丈’과 같은 誇張法은 흔한 것이나, 貧寒하고 작은 포구인 佐須浦에 와서 “武陵桃源 꽃 속에 노 젓는 것도 같다”거나, 西泊浦를 “神仙窟”이라 부른 것은 과장된 修辭이다. 筆者도, 靑泉의 詩句에 흘러서 늦여름에 직접 이곳을 둘러보았더니, 靑泉의 詩的 感興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놀랄 정도의 경치는 아니었다. 경치에 감탄한 靑泉이 그곳을 차지한 “고래나 이무기와 같은 오랑캐”를 강조한 것은, “仙境”을 차지하고도 모르는 “오랑캐”를 對比시켜, 그들을 卑下하려는 레토릭(rhetoric)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靑泉은 이러한 속내를 나중에는 그대로 드러내어, 琵琶湖에서는 “어떤 오랑캐가 이 좋은 강산을 맡았나” 탄식하였고,(9월 13일) 箱根湖에 비친 富士山の 絶景을 보고는 “이제 비로소 조물주의 수단을 편벽되게 왜놈들을 위하여 허비한 것임을 알겠구나”하며 불평하

였다. “中華의 높은 선비”가 絶景을 못 보게 한 것이나, “倭俗”이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 조물주의 不公平이며, ‘中華’와 ‘倭’ 모두에게 不遇한 일이라고 해석해 하였다.(9월 24일) 그러면서 일본의 절경에 탄식하기를 “인생이 이런 한 구역의 땅을 얻는다면 늙어 죽도록 紅塵(紅塵)을 밟지 않을 것이다”며 일본의 景觀을 부러워하였다.(9월 15일)

대마도 府中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고기비늘처럼 모였으나 감히 떠들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이 없었다. 使館의 모양을 보니, 器物的 尺度가 일정하고 문짝에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었다. 이렇게 자세히 群衆의 질서와 器物的 정교함을 살펴본 靑泉은, 이들이 과연 오랑캐인가 하고 내심 놀랐으나, 靑泉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이 표하는 禮에 있었다

드디어 6월 30일 禮에 대한 事端이 벌어졌다. 島主는 舊例에 따라 祭術官과 書員 및 畫員을 자신의 邸宅으로 초청하여, 府中의 文士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역관이 前例를 알려주기를, 島主 앞에 가서 祭術官이 절하면, 島主는 앉아서 楡(掛)만 한다고 한다. 靑泉이 생각할 때 前例라는 것이 도무지 事理에 맞지 않는 禮法이었으므로 島主 앞에 가서 직접 따지기로 마음먹고 나섰다. 靑泉은 먼저 雨森芳洲에게 前例가 틀렸음을 역설하였다. 즉, 자신은 京官으로 대마도에 왔으며, 島主는 朝廷의 藩臣으로 예조참의나 동래부사와 대등한 관계지만, 國法에 京官이 外地에 나가면 尊卑에 상관없이 藩臣과 한 자리에서 서로 경의를 표하는 것이 禮다. 그런데 대마도가 말하는 前例는 朝廷의 신하가 藩臣에게 체모를 잃게 하는 것이므로, 靑泉은 島主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였다. 譯官은 일이 어렵게 될 것을 걱정하여 통역을 하지 않았으나, 靑泉의 말을 알아들은 雨森芳洲는 舊例를 一朝에 폐지하려고 하니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발끈 성을 내었다. 雨森芳洲는, 조선에서 통용되는 禮法이나 格式을 일방적으로 대마도에 적용하는 것은 道理에 어긋나며, 외교 분쟁을 피하려고 前例를 重視하는데, 갑자기 조선 예법에 어긋난다고 前例를 무시하는 것도 非禮라고 분개한 것이었다.<sup>20)</sup> 그러나 靑泉은, 이러한 舊例가 바로 일본이 조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역습하며, 칼로 위협해도 禮法은 고칠 수 없다고 버티었다. 이것은 지난 1711년 사행 때 대마도가 일방적으로 舊例를 改變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名分과 序列에 儒教 秩序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선 士大夫의 당연한 論理였다.

靑泉은, 무식한 島主 앞에 절하고 자신의 글을 팔아 賞品을 받아 간다면, 一身의 비루한 짓일 뿐만 아니라 朝廷의 羞恥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雨森芳洲의 調停으로, 島主가 文士들과 교류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손님들만 밖에서 연회를 받기로 하였으나, 島主는 靑泉에게 아무 선물도 보내지 않았고, 서로 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靑泉은, 島主가 선물을 안 보낸 것은 당연하나,公私의 구별 없이 함부로 감정을 노출하는 島主의 처사를 可笑롭다고 비웃었다.

20) 雨森芳洲는 『交隣提醒』〈(24) ‘동신사와 쓰시마의 생각 차이’〉에서도 이것을 주장하였다.

靑泉의 행동은 金誠一의 ‘華夷思想’과 一脈相通하지만, 明 멸망 이후 조선이 儒敎文化의 中心이 되어 그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자부하였던, 18세기 초의 ‘朝鮮中華主義’에서 起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21)</sup> 아울러 靑泉은 자신의 文才를 自慢하였으므로, “나의 뱃속에 든 詩書가 白金 한 봉지에 팔려가야 하느냐”며, “無識한 島主”와 섬의 文士들에게 文才를 보여주고 賞品을 받는 것이 可笑롭게 보일만큼 文化優越主義에 차있었다.

### 2-3. 靑泉의 好奇心

靑泉은 異國 文物에 好奇心이 많았다. 우선 답답한 落鄉 생활에서 벗어나, 먼 바다 건너 異國 使行이 마음 설레는 여행이었고, 先行 사행록을 읽으며 준비하는 중에 일본에 많은 호기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출발에 앞서 “멀리 멀리 딴 고장을 지나 차레차레 이름난 곳 찾으리, 쇠락하게 정신 나는 구경하며, 날고 뛰어 웅장했던 뜻에 맞추리” 하며 여행의 기대를 읊었다.(5월 18일) 이러한 기대가 있었기에 지나는 곳의 文物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기심을 보였고, 또 간단한 日本語를 말 할 수 있었으니, 이렇게 체험을 통하여 일본을 알려고 노력했던 使臣은 아직 없었던 것 같다. 靑泉은 대마도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부터 유심히 살펴보고, 器物의 尺度가 일정하고 문짝에 털끝만큼도 빈틈이 없음을 보고 내심 놀랐다. 계속하여 靑泉의 관찰과 描寫는 마치 정밀화를 그리듯 모양과 색깔까지 정확하게 알려준다. 우선 島主를 처음 보고, 이상한 차림새를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島主가 船屋 위에 床을 놓고 앉았는데, 머리에 쓴 검은 모자가 위는 뽀족하고 아래는 둥글며 중간에는 검은 조그마한 잠(簪)을 가로 꽂았는데 길이가 두어 치었고, 뒤에 뿔 하나가 달렸는데 솟아났다 다시 구부러져 아래로 한 자쯤 드리웠다. 그 옷은 옅은 자색과 옅은 흑색인데, 바라보면 중의 장삼과 같았고, 아롱진 바지를 입고 흰 버선을 신었으며 왼쪽 어깨 밑에는 쌍칼을 꽂았다. (6월 27일)

이렇게 섬세하고 예리한 관찰력을 가졌기에 靑泉의 詩的 감흥도 깊었지만, 자신의 호기심을 발휘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마도에서는 잠시 일행에서 벗어나 民家를 살피다가, 대마도 通事로부터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다’는 禁令을 어겼다고 주의를 들었지만, 赤間關[下關]으로 가다가 地島에 잠시 머물렀을 때도 대마도 通事の 감시를 받으며 民家까지 살펴보고였다. 그는 예사롭게 살림살이만 살펴본 것이 아

21) 1590년 通信使 副使로 갔던 金誠一은 島主가 가마를 타고 뜰을 지나 대청에 올라와 使臣들을 훑어보는 것에 분개하며, “오랑캐는 예의가 없다지만 君臣 上下에는 분수가 있는 법”이고, “사신이 모욕을 당하면 王命도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며, 병을 핑계로 宴會를 거부하고 使館으로 돌아갔다.

나라, 일부러 살림 형편과 植生까지 물어보았고, 부엌살림과 식물의 특징까지 자세히 기록하였다.

또 靑泉은 先行 사행록을 읽고, 흥미 있는 곳을 기억하였다가 확인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하였다. 1643년 사행의 從事官이었던 申濡는 『海槎錄』에서, “猿山”이란 地名은 “산에 원숭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며, “猿山”을 지나며 “세 소리 듣기 전에 눈물이 옷을 적시네(猿鳴三聲淚沾裳)”라고 읊었다. 申濡의 詩는, 杜甫의 “秋興 八首”에서 “원숭이 우는 소리를 세 번 들으면 매양 눈물을 떨어뜨리고, 사신으로 가매 헛되이 8월의 뗏목을 따랐네(聽猿實下三聲淚 奉使虛隨八月槎)”의 ‘원숭이 우는 소리’를 모티브(motive)로 읊은 것이다. 靑泉은 “猿山”이란 地名과 杜甫의 “秋興 八首”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의 처지가 마치 杜甫의 “秋興 八首”에서처럼 “八月의 奉使”이었으니, 조선에서 들을 수 없었던 ‘원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느껴지는 ‘秋興’을 읊고 싶어, 雨森芳洲에게 “猿山”이 어디냐고 물었다.<sup>22)</sup> 雨森芳洲은 靑泉이 “猿山”을 묻는 뜻을 알고, 배를 잡고 웃으며 “원산(元山)”이 잘못 전해져 “원산(猿山)”이 되었고, “거기에 원숭이 소리가 들을 만하다고 보태어졌다”고 설명하였다. “猿山”을 지나며 “猿鳴”을 듣고, 杜甫의 “秋興 八首”처럼 使臣의 旅愁를 읊으려던 靑泉의 詩의 好奇心은 雨森芳洲의 웃음소리에 霧散되고 말았다.

大坂에 들어가려고 樓船으로 옮겨 탄 靑泉은, 樓船의 화려함은 물론이고 大坂의 화려함에 놀랐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보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다.

왼쪽을 볼 때에는 오른쪽의 관광을 놓칠까 두려웠고, 오른쪽에서 볼 때에는 왼쪽의 것이 문득 더욱 기이하므로 배를 타고 半日 동안 가는 사이에 두 눈이 다 붉어져서 마치 식욕 많은 사람이 진수(珍羞)를 얻어놓고 배는 불렀으면서도 입은 당기는 것과 같았다.

(9월 4일)

大坂의 모든 것이 크고 화려하며 秩序整然한 것에 놀랐으나, 三使를 비롯하여 靑泉은 이곳이 “秀吉의 故都”라는 先入見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大坂의 화려함이 秀吉의 惡行과 오버랩(overlap)되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나 好奇心 많은 靑泉은, 대마도를 거쳐 大坂로 오는 동안에 제법 日本語를 익혀서, 茶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니 재미가 있었다. 특히 그는 茶店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림 속의 사람과 같았다”고 감탄하였다. 근엄한 선비가 茶店 여인네 모습에 감탄하는 것은 짐작지 못하였으나, 靑泉은 “女色の 요망스럽고 고운 것이 많음”을 「聞見雜錄」에서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또 통역의 말을 빌렸다고 하였으나 “花紫는 22세요, 若紫는 20세요, 小紫는 15세요, ..... <中略>..... 이들이 上上 上中の 미인입니다” 라는 대목은 必要

22) 松尾芭蕉도 紀行文『野ざらし紀行』에서, 「猿を聞人捨子に秋の風いかに」(원숭이 우는 소리에 간장을 녹이는 詩人이며, 가을바람 소리에 듣는 버려진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떠한가)라고 읊었다.

以上으로 자세하다. 당시 妓生 나이가 어린 것이나 유명한 유곽에 美人이 있는 것은 당연하였을 터인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듯이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靑泉의 왕성한 호기심과 아울러 읽을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사신이 자유롭게 市街를 살필 수 없었기에 통역의 말을 빌렸다지만, 마치 유곽이나 閨房을 엿본 듯 性風俗 묘사는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다.

先行 使行錄에서 大坂의 유곽이 유명하다고 하였으니, 39세의 壯年 靑泉은 유곽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신들은 자유로운 외출이 금지되었고 화려한 유곽 모습이 무척 궁금하였으므로, 자연히 화제는 통역이 전하는 유곽 이야기에 집중되었을 것이다. 靑泉도 근엄한 士大夫였지만, 女色에 무심한 道德君子인체 하지는 않았다. 江戶의 島主 邸宅에서 열린 연회에서, 娼女の 희롱하는 情景를 묘사한 춤을 보며 대마도 奉行이 靑泉에게 “이런 흥취를 아느냐”고 물었다. 靑泉은 “무쇠나 돌로 된 심장이 아닌데 어찌 모르겠소만, 다만 두려워하고 삼갈 뿐이요” 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당시 조선에 賣春은 없었지만, 서울을 비롯한 큰 지방 官衙에는 官妓가 있어서 地方官이나 출장 나온 士大夫의 시중을 들어주고 생활의 편의를 돌보아주었다. 이들 妓女는 官衙 잔치에서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거나 主席에 앉아서 술시중을 듣기도 하며, 때로는 守廳이라 하여 士大夫의 잠자리 시중까지 듣기도 하였다.<sup>23)</sup> 16세기 말에 司憲府 大司憲과 弘文館 副提學(正3品)을 지냈고 全羅道 監司까지 올랐던 士大夫의 日記에도 妓女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壬辰倭亂 이전에 이미 性病[淋疾]이 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당시 士大夫들은 外地로 나가면 대개가 마음에 드는 妓女를 골라 시중을 들게 하였고, 때로는 한 妓女를 두고 서로 다투는 양반들도 있었다. 그러나 士大夫들이 外地에 있던 기간이 짧았으므로, 이들 妓女들은 일생 동안에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였을 것이며, 壬辰倭亂 이전에 性病이 돌았다는 것은 賣春이나 性道德 문란 때문이 아니라, 주로 妓女들에 의해 전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이 對日關係에서 갈등을 겪었던 것 중에는 性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었다. 조선은 倭館의 대마도 사람들이 조선 여자와 姦通하는 것을 엄금하였으나, 대마도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 1707년 姦通 문제가 터지자 조선은 여자를 효시하고 대마도 姦通犯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계를 보냈으나, 대마도가 수령을 거부하여 결국 1711년 사행 때 使臣이 직접 約條를 정하게 되었다. 그 때 조선이 姦通犯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하자 대마도는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性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를 말해주는 實例였다.<sup>25)</sup>

23) 1607년 일본에 가던 “회담검쇄환사”의 副使 경심(慶暹)도, 鳥嶺을 넘기 전 “촌집이 누추하여 침식이 괴로웠는데, 牧伯이 뒤에 기생 두 사람을 보내어 客僕를 위로해 주었다”고 하였다. (『海槎錄』 정월 19일)

24) 미암(眉巖) 柳希春의 『眉巖日記』(1567~1577)를 풀어 쓴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鄭昌權 풀어 씀, 사계절 刊, 2003) 참고. p.107-108, p.219-226,

先行 使行錄이 일본의 性風俗을 소개한 것은, 實例를 들어 “오랑캐”로 卑下하려는 목적이었으나, 靑泉의 목적은 異國의 性風俗과 女色을 소개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使行 中에 茶店에 들러 女人들을 보니, “茶를 다려놓고 기다리는 모습이 완전히 그림 속의 사람과 같았다”는 기록과 「聞見雜錄」을 보면, 그가 얼마나 女色에 관심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다.

여색은 요망스럽고 고운 것이 많아서, 비록 연지와 분을 바르지 아니하여도 대개 부드럽고 미끄럽고, 희게 분을 바르고 화장을 짙게 한 자도 또한 살결이 부드럽고 미끈하므로 자연히 본색과 같으니, 눈썹을 그리고 불그스레한 안색 검은 머리 화잠(花簪)에 오색 무늬의 비단옷을 입고, 띠로써 허리를 묶고 부채를 안고 선 자는 바라보니 사람의 형용이 아닌 것 같았다. (「聞見雜錄」)

靑泉은 통역이 전하는 유곽 이야기를 흥미 있게 들었을 것이며, 거기에 韻을 붙여서 유곽을 소재로 「浪華女兒曲」이란 五言絶句 30수를 지었고, 男娼 이야기로 「男娼詞」라는 七言絶句 10수를 지어 일본의 性風俗을 전하였다. 유곽과 男娼의 음탕한 詩를 使行錄에 넣으면서, “孔子가 教化를 위하여 鄭聲을 멀리하라 하셨으나 詩經을 편찬할 때는 (음탕한 詩가 많았던) 鄭風과 衛風을 채택하여 後世의 경계로 삼았다”며(9월 9일), 자신이 음탕한 詩 40首를 늘어놓는 목적도 後世를 警戒하려는 뜻이라고 辨明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로 보이며, 실은 일본의 奇異한 性風俗을 소개하여, 讀者들에게 흥미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행록에 실은 各種 詩도 읽을거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4. 靑泉이 만난 사람들

靑泉은 일본에서 “關白 이하 大官. 庶僚로부터 각종의 사람을 여러 천명 만명” 만났는데, 그들의 “기품은 연약한 것이 많고, 말과 행동은 추술하고 얌은 것이 많고, 한 사람도 걸출하고 웅장하고 바라보아 두려워할 만한 형상을 가진 자라곤 없었다.”<sup>25)</sup> 그 중에서 靑泉은 文士들과 가장 가깝게 필담을 나누었고, 이들은 事前에 선발된 文士들이었다. 靑泉은 “詩書로 오랑캐를 가르치겠다”고 使行의 포부를 읊었으므로 (5월 18일) 製述官으로 當代의 一流 文士들과 詩文을 매개로 만나며, 그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靑泉이 먼저 유심히 관찰한 사람은 對馬島主(宗義誠)였다. 靑泉은 島主가 쓴 모자 모양과 색깔에 크기까지 자세히 살폈고(6월 27일), 島主의 行動舉止를 눈여겨보았더니 “위인이 분명하지 못하여, 使臣이 말을 건네자 그가 입을 벌리는 듯하면 奉行이 대신 말했

25) 『國譯 增正文隣志』제4권 p.137

26) 「聞見雜錄」

다.”(6월 29일) 鳥主는 26세로 “모양이 천박하고 일을 잘 살피지 못하므로 政事가 모두 아래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는데, “눈으로 丁字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인데 한갓 벼슬이 높고 뇌물이 후한 것을 빙자하여”, 사신이 절하며 詩文을 지어 주면 상품을 내린다니, 도무지 上國 士大夫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靑泉은 무식한 鳥主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하며, “나의 뱃속에 든 詩書가 白金 한 봉지에 팔려가야 하느냐” 며 노골적으로 鳥主를 무시하며, 權力과 富를 내세워 거들먹거리는 無識한 鳥主를 비판하는 反骨氣質도 보였다.

靑泉은 이러한 反骨氣質을 大坂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보이며, “大坂의 館伴(藤原長泰)은 정신도 혼미하여 사람 같지가 않았고, 町奉行은 행동에 겁만 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將軍의 重臣이라 하는데, 일본의 官爵은 세습이라 이렇게 도깨비 같은 무리가 직책에 앉아있으니 가소롭다”고 한탄하며, 세습이라는 제도에 便乘하여 높은 관직을 차지한 無識한 武士들을 비판하였다. 조선에서는 자신 같이 詩文이 뛰어나고 科擧에 급제한 사람도 要職에 오르지 못하였는데, 일본에서는 科擧가 없어서 무식한 武士가 세습이라는 제도 덕분에 높은 官職에 올라, 文士를 부리며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였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以酌菴의 性湛 長老”에 대한 인물평은 매우 우호적이다. 以酌菴의 性湛은 “위인이 옛 태가 있어 단아하였고, 佛經을 널리 통하여 마주 앉았는데 오랑캐의 속된 기색이 없었고”,(6월 28일) 다음 날 보아도 “용모가 늙은 매화 등걸과 같이 소박하여 사랑스러웠다.” 비록 性湛과 주고받은 詩篇이 한 권 한 축이나 되었으나 한 구절도 볼 만한 것이 없었으나, 靑泉은 性湛과 가장 교분이 깊었다. 조선은 開國 이후 오랜 排佛政策으로 士大夫와 佛僧은 共感帶를 형성하기 어려웠으나, 靑泉은 佛理에도 통하고 있었으므로 필담을 통하여 禪僧의 경지를 이해하며, 은은히 풍기는 梅香 같은 性湛의 氣品에 끌리어 친근감을 느꼈다. 靑泉과 性湛은 추구하는 學問도 달랐고, 깊이 있는 詩文唱和도 할 수 없었으나, 禪僧의 은은한 道氣와 士大夫의 氣風은 一脈相通하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sup>27)</sup> 지금까지 사신들은 일본의 外交僧과 學問的인 차이로 친근감을 가질 수 없었으나, 靑泉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佛僧에게 친근감을 가졌으며, 儒學 일변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靑泉은 조선에서부터 대마도의 記室 雨森芳洲는 “漢語에 능통하고 詩와 文을 말할 줄 알아 일본에서 제일이라는 말을 들었다.” 雨森芳洲는 靑泉이 오자마자 찾아와서(5월 28일), 지난 사행 때 使臣과 交分이 깊었음을 자랑하며 安否를 물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보니 얼굴이 푸르고 말이 무거우며 마음속을 드러내지 아니하여 자못 文人의 소탈한 기

27) 11월 3일 大佛寺에서 性湛의 高弟 智門을 만났을 때, 智門은 청천에게 “근일 저의 스승을 통하여 공의 문장을 보매 한쪽으로는 佛理에 통하였으니, 風塵 세상에서 벼슬하는 가운데서 어떤 공부를 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상이 없다”며 부정적인 인상으로 은근히 경계하였고, 이러한 첫인상은 앞으로 전개될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예견하고 있었다. 다음 날 島主에게 절하는 문제로 譯官과 前例를 따질 때, 雨森芳洲가 조선말을 알아듣고 발끈 성을 내며 역관을 힐난하는데, 성난 모양이 대단하였고 소리까지 질렀다. 京都 大佛寺에서 從事官은, 大佛寺는 秀吉의 願堂이므로 怨讐를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연회 참석을 거부하였다. 그 때 양측을 仲裁하던 雨森芳洲가 화를 내는 모습이 靑泉에게는 意外였다. “雨森東은 모진 사람이어서 성을 풀 데가 없어서 곧 首譯官과 사사로운 싸움을 벌여 조선말 왜말을 섞어 가며 獅子처럼 으르렁거리고 고슴도치처럼 뿔이 나서 어금니를 드러내고 눈가이 찢어져서 거의 칼집에서 칼이 나올 듯하였다.” 靑泉은 雨森芳洲를 타이르며 “당신은 글을 읽은 사람이 아닌가? 어찌 성을 내어 행패를 하시오?” 하였다.(11월 3일) 사신은 幕府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秀吉의 怨讐를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從事官만 연회에 불참하였는데, 雨森芳洲는 자기 의견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었으니, 靑泉이 『聞見雜錄』에서 人物을 평하며 “(일본인은)조금이라도 마음에 거슬리면 떠들며 날뛰어 生死를 모른다 (中略) 한 사람도 넓은 度量으로 重한 人望을 지닌 자는 없다”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리라.<sup>28)</sup>

靑泉이 雨森芳洲를 처음 보고 “文人の 소탈한 기상이 없다”는 말은 文人이 풍기는 文字香과 書卷氣가 없고, 마치 武士 같은 印象을 받았다는 뜻이며, 외교상의 작은 충돌을 대범하게 보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며 연성을 높이는 雨森芳洲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것도, 그의 毒한 인상을 강조하려는 뜻일 것이다.

대마도를 떠나올 때 雨森芳洲가 이별의 눈물을 흘리자, 靑泉은 “내가 그 형상을 보매, 험하고 독하여 평탄하지 못하였고, 겉으로는 문장을 한다고 핑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창과 칼을 품었으니, 만약 그로 하여금 국가의 높은 지위에서 권력을 잡게 하였다면 반드시 이웃 나라에 일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인데도, 국법에 국한되어 작은 섬의 한 개의 記室에 불과하여, 그 땅에 살다가 늙어 죽게 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이니, 이별하는 자리의 눈물은 곧 자신을 슬퍼하는 것이었다”(12월 28일) 라고 이별의 눈물까지 否定的으로 보았으니, “文人の 소탈한 기상이 없다”라는 첫인상은 여러 사건으로 증폭되어, 결국 이별의 눈물까지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靑泉은, 1711년 사행의 正使 趙泰億이 가져온 詩草를 통하여, 대마도 記室 松浦儼가 박식하고 글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궁금하였는데, 대마도에서는 만날 기회가 없다가 壹岐島에서 만났다. 靑泉은 그와 의기투합하여 조선에서 가져간 술과 안주를 권하며, 樂

28) 幕府가 大佛寺와 耳塚을 사신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일본의 武威를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雨森芳洲가 1728년(享保 13)에 완성한『交隣提醒』에서 “(大佛寺 묘제의 화려함에 조선인이 감탄할 리 없다. (中略) 正德年間(1711) 통신사 일행이 大佛에 들렀을 때 耳塚을 숨겨두고 보이지 않은 적이 있는데, 享保年間(1719)에도 그러한 先例를 들어 조선인한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였는데, 雨森芳洲의 생각이 이렇게 변한 것은 사행을 두 번 경험하고 터득한 것이다

그를 불러 거문고를 들려주며 필담을 나누었다. 靑泉은 오랜만에 知己를 만난 듯 “그는 나이 40인데 키가 작그마하며 편편한 才士의 기상이 있었다. 시에 대한 이론이 특이하였고 작품도 간간히 좋은 것이 있었으나”, 痔疾로 불편하여 오래 앉아 접대할 수 없었음을 애석해 하였다.

카마가리[鎌刈]에서는 하루에 꿩 300여 마리를 준비할 정도로 접대가 융숭하였는데, 여기서도 知己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廣島城의 儒官 味木虎는 林太學의 門人으로 70여 세인데, 中國 古事에 ‘桑維翰’이 쇠로 만든 벼루로 공부하여 ‘桑樞密까지 오른 것을 알고, 靑泉의 이름 ‘維翰’과 연관시켜, 靑泉에게 쇠 벼루를 쓰라고 하였다. 오랜만에 중국 古事를 인용한 機智에 찬 농담을 들은 靑泉은, “당신이 ‘味木虎’인데, 호랑이는 쇠를 겁내므로 쇠 벼루를 내놓지 아니 하오”하고 되받아 넘겼다. 중국 古事에 밝으며, 田園에서 萬卷 서적에 파묻히고 싶다는 味木虎의 말도 좋았지만, 시를 唱和하여 보니 “역시 詩도 平順하여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였고, 사람됨이 안정하여 古氣가 있었다.”(8월 27일)

牛窓에서는 本蓮寺에서 묵었다.(9월 1일) 멀리 보이는 바다 경치가 좋았고, 客舍 시설도 精妙하였으며, 庭園의 갖가지 화초들도 좋았다. 이곳 文士들과 唱和하는 자리에서 靑泉이 “이곳의 地名이 ‘우저(牛渚)’인데 뒷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五章의 詩를 전하게 할 수 있겠소?” 하며 그들의 漢詩 實力을 테스트해 보았다.<sup>29)</sup>

그러자 牛窓의 文士는 “이곳의 名勝이 옛날의 ‘牛渚’보다 못하지 않으니, 公이 배를 타고 와서 ‘淸川飛夜霜’이란 글귀를 읊조린다면 족히 千秋에 전할 것입니다” 라고 李白의 시를 인용한 재치 있는 답변으로, 靑泉을 李白에 비유하며 추켜세웠으니, 靑泉은 그들과 밤이 깊도록 어울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만남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역시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고, 兩國 文士들은 故事와 名詩라는 공통의 코드를 서로 확인하고, 同文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니, 靑泉은 여기서 먼 바다를 건너 온 보람을 느꼈다.<sup>30)</sup> 大坂에서도 여러 文士들을 만났으나, 1711년 사신들과 唱和集 序文을 청한 三宅蒼溟에게 明의 文豪 李于鱗을 話頭로 던졌더니 재치 있게 받아넘겼다. 시를 짓는 것이 빠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스스로 아껴서 가벼이 돌 속에 든 옥을 내보이지 아니하려는 뜻” 같아서 기꺼이 서문을 지어 주었다.

鳥山石輔의 「芝軒集」을 보니, “富貴한 사람이면서 困窮한데 마음을 쓰며, 孤苦하고 교

29) ‘우저(牛渚)’라는 말은 ‘牛窓’을 李白의 「夜泊牛渚懷古」에 비유한 말이다. 東晉時代 謝將軍이 微服 차림으로 강에 배를 띄우고 가다가, ‘牛渚(長江邊에 있는 地名)에서 袁宏이 읊은 시를 듣고 크게 탄복하여 배로 불러다 날이 밝을 때까지 담론하였다는 故事가 있다. 李白 자신도 멋진 시를 읊을 수 있건만, 들어주는 謝將軍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자신의 처지를 「夜泊牛渚懷古」에 담아 읊었다. 「夜泊牛渚懷古」- “牛渚西江夜 青天無片雲 登舟望秋月 空憶謝將軍 余亦能高詠 斯人不可聞 明朝掛帆席 楓葉落紛紛”

30) 이렇게 중국 故事나 名詩를 통하여 실력을 확인하는 것은, 서로의 코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서로 인정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러한 예는 1711년 新井白石과 正使 趙泰億의 「江關筆談」에서도 잘 보인다.

교(倭倭) 치밀하여, 일본에서는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시인인데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文士가 어찌하여 辛卯年(1711) 사신과 唱和하지 않았을까가 궁금하였다. 靑泉은 그 이유를 “아마도 그 위인이 틀림없이 介潔하게 높이 처신하여 當世의 사람에게 알리기를 구하지 않은 듯하다”고 추측하였다. 그러면서 靑泉은, 鳥山石輔의 제자 河間正胤이 지은 祝詩가 “가소로우나 즐겁게 頌祝하는 뜻이 지극하여” 『海游錄』(11월 4일)에 수록하였다. 이것은 河間正胤이 鳥山石輔의 高弟이고, 辛卯年(1711)에 사신과 唱和하지 않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高弟의 祝詩를 수록하였다고 보는 것은 억측은 아닐 것이다.

靑泉은 대마도에서 雨森芳洲의 소개로 泉南의 文士 唐金興隆에게 詩와 記文을 지어주었는데, 大坂에서 唐金興隆의 謝意 편지를 받아보니 그 글이 자못 운치와 기운이 있었다. 歸途에도 唐金興隆은 五言絶句 두 편과 私稿 한 권을 보내어 작별 인사를 하였는데, 그 중에도 볼 만한 것이 많았다. 三宅蒼溟에게 물어보니 “唐金興隆은 천한 사람으로 큰 富豪로 이름이 있으나, 그의 글은 모른다”고 하였으나, 청천은 꼭 만나보고 싶을 만큼 그의 私稿에 볼 만한 것이 많았다. 그래서 靑泉은 이를 애석하게 여기며 唐金興隆의 惜別詩를 『海游錄』(11월 4일)에 수록하였다.

江戶의 客館에서는 太學頭 林信篤과 두 아들이 찾아왔다. 그 집안이 대대로 일본의 文學을 주관하고, 祿을 먹는 門徒가 수십 인이라 하는데, “그 얼굴은 근신하고 후함은 남음이 있으나, 詩文은 하나도 볼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벼슬은 세습으로 太學頭이고, “재주와 학문이 있는 文士도 林信篤을 平床 아래에서도 바라볼 수 없으며, 一國의 儒士들이 泰山이나 北斗星처럼 우러러 본다니 가소로운 일이었다.” 이튿날도 林信篤 父子가 찾아와 詩文唱和를 청하였으나, 國書傳命 前에 긴요하지 않은 唱和는 온당치 못하므로 돌아갈 때 하겠다고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江戶까지 이르는 동안에 到處에서 詩文唱和를 하였으면서, 國書傳命을 이유로 林信篤과 唱和를 사양하였고, 나중에도 林信篤과는 기회가 없었다. 『海游錄』에 일본 儒士들이 우러러 본다는 林信篤의 詩를 수록하지 않고, 대신에 두 아들의 작별시는 수록하였으나 모두 보잘 것 없다고 혹평하였으니, 靑泉의 林信篤 평가가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도 靑泉은 林信篤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일본의 세습제를 비판하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유능한 文士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일본의 학문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대체로 일본 사람들은 “그 인물들이 민첩하고 명석한 자는 많은데, 질박하고 두터운 자가 적으니, 대개 江山의 氣運을 얻은 때문”(『聞見雜錄』) 이라며, 靑泉은 인물이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雨森芳洲도 “얼굴의 아름다움은 居移氣에서 말미암은 것”(10월 9일) 이라며 환경론에 同調하였다. “居移氣”는 『孟子』(盡心章句上)에 나오는 것으로, 環境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日本에는 “웅장하고 험하고 원대한 형세가 없고, (山河가) 곱고 산뜻하여 그림 속에 있는 것과 같아”, 질박하고 두터운 氣質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靑泉은 일본인의 氣質 형성을 사회적인 要因으로 보지 않고, 당

시 조선 사회를 風靡하던 風水地理로 일본인의 氣質을 이해하려고 하였다.<sup>31)</sup>

## 2-5. 靑泉이 본 일본 詩文

先行의 사행록은 거의 일본 詩文의 치졸함을 거론하며 使行에서 조선 詩文의 우월성을 자랑하였다. 그래서 靑泉도 사행을 떠나며 “詩書로 오랑캐를 가르치겠다”는 큰 포부를 읊었던 것처럼, (5월 18일) 詩文으로 조선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제술관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밤잠도 설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런데 일본의 詩文을 살펴보니, 中華를 모방한 나머지 그 글을 읽으면 일본인줄 모르겠는 것도 있었다. “그 땅에 피꼬리와 까치가 나지 않은데, 문장에는 피꼬리가 울며 까치가 지저귄다는 말이 있고, (中略) 모두 헛된 이름을 쓰고 實地에 맞는 말을 짓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병폐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일이었는데, 일본인들의 시문에도 그러한 병폐가 많았다. 靑泉은 남을 가르치다가, 자기 잘못도 발견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詩文 唱和를 하면서 靑泉이 살펴보니, “그들 중에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본래 총명한데다, 科擧를 위한 표절하는 폐단이 없어 오로지 열심히 노력하여, 옛글을 토론하여 능하고 못한 것을 평할 때에 소견의 정확한 것이 혹 거의 글을 잘하는 선비와 같았다.” 그런데 詩文에서만은 확연히 차이가 보였다.

그로 하여금 古詩나 律詩를 짓게 하면 平仄이 많이 어긋나고 韻致가 전혀 상실되어 우리나라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음거리가 될 만하고, 序文 記文 雜文을 짓게 하면 눈먼 뱀이 갈대밭에 달리는 듯 하여 법도와 기운이 하나도 볼 것이 없으니, 이것은 어찌 人材가 정한 한도가 있어 그러한 것이라? (『聞見雜錄』)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雨森芳洲의 변명은, “文章을 배우는 사람들이 귀국과 이주 달라서, 힘을 쓰는 것은 심히 부지런히 하나 성취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하였다. 즉 일본 文士들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言語가 달라서 詩文이 잘 안 된다는 뜻이라, 靑泉도 말뜻을 이해하고 “그것은 대저 해외에서 오랑캐의 말을 지껄이는 곳이 되어, 聲律이 전연 어긋나므로 韻文을 짓는 것이 서술문보다 百倍나 되는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靑泉이 보기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詩文이 말이 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원인이 궁금하였다. 사신이 일본 시문을 보고, “平仄에 어긋남을 모른다”는 말은 일찍부터 있었다.<sup>32)</sup> 그러나 사신들은 대개 그 원인을 일본 詩文의 後進性으로 보았으나, 靑泉은 마침 雨森芳洲의 설명을 듣고서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31) 『論語』 「子路」에서 “剛毅木訥近仁(강직하고 과감하며, 질박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 仁에 가깝다)” 하여, 조선 士大夫도 “질박하고 두터움”을 바람직한 氣質로 보았다

32) 1617년 李景稷의 『扶桑錄』 7월 17일

漢字에는 平上去入의 四聲이 있으며, 平聲은 順平한 소리고 仄聲은 上聲 去聲 入聲을 말한다. 그래서 漢詩에는 平仄이 맞지 않으면 마치 聲韻을 모르는 이의 글과 같아서, 平仄을 지켜야만 漢詩가 된다. 明 太祖 年間인 1375년(洪武 8)에 편찬한 韻書인 『洪武正韻』을 참고하여, 조선은 「訓民正音」과 『東國正韻』을 지었다. 이러한 緣故로 조선에서는 『東國正韻』을 대표적인 韻書로 漢詩 作법에 이용해 왔으나, 아무리 平仄을 맞춰 詩를 지어도 가락에 걸맞지 않는 수가 많았다. 이것은 외국인이 아무리 우리말을 잘하여도 時調를 지으면 字數는 맞아도 리듬이 어색한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漢詩는 聲律에 익숙하기까지는 수준에 이르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漢詩 習作의 기본은 中國 名詩를 모델로 삼아, 次韻이나 和韻을 계속 익히는 가운데 저절로 혀가 聲律에 맞는 시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平仄만 맞았다고 詩가 되는 것도 아니며, 漢詩의 境地에 이르지 못하면 다만 글자를 集字한 字會에 불과한 것이다.

靑泉이 살펴보니, “시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먼저 韻書를 가지고 여러 해를 공부를 하여, 능히 아무 글자는 높고 아무 글자는 낮은 것을 구별한 뒤에 억지로 맞추어 시를 만들고, 글을 읽을 때에는 先後를 거꾸로 맺는 법을 알지 못하고, 글자마다 애를 써서 그 손가락을 내렸다 올렸다 한 뒤에 겨우 그 뜻을 통하니”, 우리나라에 비하면 詩文에 通達하기가 百倍나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雨森芳洲는 일찍이 중국어와 조선어를 공부하여 三國 언어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에, 靑泉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였던 것이다. 靑泉이 雨森芳洲의 설명을 듣고 보니, 과연 일본 詩文의 平仄이 맞지 않는 것은 言語의 구조적인 차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實例를 보여주기 위하여, 靑泉은 林信篤 두 아들의 시와 몇 사람의 시를 인용하며, “왜인의 칭하는 上等에 속한다는 사람이 이와 같은 데에 불과하였다 는 말은 일본인의 詩才를 貶下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에게 韻文은 어렵다는 實證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雨森芳洲의 시가 좋은 것은 그의 詩才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가 三國 언어에 능통하였고, 百家의 글을 분별하며 문자의 難易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시의 聲律이 잘 맞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詩文을 통하여 일본을 유교 문화로 敎化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고, 일본의 특성을 나름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靑泉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靑泉은 吉宗 將軍의 말을 인용하여, “일본 사람이 조선의 문학을 사모하나 風氣가 각각 달라 배워서 능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는 스스로 日本文을 하는 것만 못하다”(9월 27일) 라는 말에 크게 共感하였던 모양이다.

### 三. 結 論

靑泉의 『海游錄』은 流麗한 문장과 독특한 毒舌로 使行錄의 白眉로 일컬어지나, 일본을 보는 시각에 큰 변화는 없었다. 사행을 떠나는 마음가짐이나 사행 활동도 여느 사신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여느 使臣과 달리, 일본의 秀麗한 景觀을 보는 시각은 羨望을 넘어서 猜忌心까지 보였다. 靑泉은 사행록을 기록하며, 마치 新聞記者와 같은 기록 정신과 好奇心을 발휘하여, 때로는 과감하게 행동하며 많은 것을 보고 쓰려고 욕심을 내었다. 그러면서 읽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話題를 선택하여, 재미있게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한 가지 예가 大坂의 遊廓과 男色 이야기다.

靑泉이 가는 곳마다 唱和와 詩文을 청하는 무리가 모여들었으니, 이러한 상황이 靑泉에게 문화적 우월감과 자만심을 갖게 하여, 일본의 眞面目을 살피는데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또 自他가 공인하는 靑泉의 글재주와 일본 문사들의 문화적 욕구가, 靑泉으로 하여금 외교보다 詩文에 치중하게 하였다. 靑泉은 자신의 글재주를 誇示하며, 일본의 詩文을 대체적으로 貶下하였으나, 일본의 詩文에 平仄이 어긋남을 洞察하고, 그 원인을 診斷한 사신은 靑泉이 처음이었다. 물론 이번에도 靑泉은 特異한 사항을 찾으려고 兵制 등을 살폈으나, 일본의 법령이 엄하여 염탐할 방법이 없었다. 靑泉은, 일본이 富強하고 풍요로운 것은, 關白도 木棉을 즐겨 입을 정도로 衣食을 절약하기 때문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경제생활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말하는 通信使 특유의 管見이었다. 靑泉은 일본 國政과 吉宗 장군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평가는 家康과 秀忠 이후 처음이었다. 이러한 호의적인 평가는 聘禮 復舊와 그간의 友好로 일본을 보는 시각에 信賴가 쌓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상처와 일본에 대한 不信이 깊어서, 上使는 일본과 우호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으나, 靑泉은 “秀吉·清正과 같은 賊이 다시 그 땅에 나지 아니하면 변방의 걱정은 万에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았다.

從事官은, 南辺이 일본과 가깝고 防備가 허술하나, 일본의 國情을 보아하니 “아마 남쪽의 근심은 없을 것이나”, 대마도가 교활하고 간사하여 조선이 北伐하려는 뜻으로 남쪽 이웃을 후대하였음을 이용하여 漁夫之利를 얻으려고 하니, 일본과 往復하는 일에 다투거나 曲從할 것도 없다고 하였다. 靑泉도 여기서, 對日本關係에는 대마도를 操縱하는데 유의하여 “실무를 아는 이는 마땅히 보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니, 역시 대마도는 對日本關係에서 ‘鷄肋’과 같은 존재였고 영원한 숙제였다.

## 【參考文獻】

- 申維翰, 『海游錄』, 「국역 해행총제 I II」, 민족문화추진회
- 鄭玉子(2001) 『朝鮮後期 朝鮮中華思想研究』, 一志社, p.9-25
- 정창권 풀어 씌(2003)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출판사, p.107-108, p.219-226.
- 하우봉 역(1998) 『國譯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 한일관계사학회편 (2001) 譯註『交隣提醒』, 國學資料院

## 要 旨

1719年頃の朝鮮は、外治イデオロギーであった「北伐論」の可能性が薄れて、政治が「禮治」へ変わって、内外的に「中華」であることを自負した。1719年の通信使の製述官であった青泉の日本を見る視角にも大きな変化はなかった。日本の綺麗な景色を見る青泉は、羨望の線を越え猜忌心まで持って、時には記者のような好奇心で、果敢に行動しながら多くのものを書こうとした。青泉は文化的優越感と詩文に自慢心を満ったので、これが日本の本来の姿を探るのに妨げになった。青泉は自分の文才を誇示し、日本の詩文をおおよそ過小評価したが、日本の詩文が平仄に合わないのを洞察し、その原因を診断したのは彼が初めてであった。青泉の見方も日本の一部を見て全体を評価する通信使ならではの拙見であったが、日本の國政と將軍を好意的に評価したのは珍しい。また日本に不信感は残ったが、青泉は日本の再侵のおそれはないと樂觀的に見た。青泉が對馬との交隣外交に注意を強調したように、まだ對馬は兩國關係において「鷄肋」のような存在であり、心配の種であった。

キーワード：禮治, 青泉の文才, 通信使, 日本の詩文, 聘禮, 雨森芳洲

투 고 : 2003. 11. 28

2차 심사 : 2003. 12. 19

3차 심사 : 2004. 1. 8

住 所 : (137-140)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6-21

電 話 : 02-576-3549

E-mail : joshua@chongju.ac.kr